

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화학공장 6곳 선정

기술표준원(원장 최갑홍)은 품질혁신, 고객감동 실현 등 현저한 품질경영성과를 거둔 국내 58개 기업을 <2006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>으로 선정했다고 11월30일 발표했다.

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품질혁신시스템, 제품개발·기술력 등 13개 분야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품질경쟁력이 탁월한 기업을 선정했는데, 수상기업은 중소기업 31개, 18개 대기업, 공기업 9개이다.

화학기업 중에서는 금호P&B화학, LG화학 울산공장, 금호폴리켄, 금호타이어 공성 및 광주공장, 금호석유화학 여수 합성고무 공장이 선정됐다.

특히, 10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니슨, 한국OSG 등 중소기업은 공정을 표준화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, 품질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제품의 특성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.

<화학저널 2006/12/1>